



메리알코리아(주)

김종영 대표이사 취임

메리알코리아(주)는 4월 1일부로 김종영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메리알코리아(주)는 1998년 6월 1일 한국지사 설립 이후 약 11년간 이성희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아 왔으며, 그 동안 직원 30명에 매출 150억 돌파라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신임 김종영 대표이사는 바이엘코리아를 시작으로 세바 지사장, 이지 바이오 고문을 역임하는 등 25년간 동물약품 업계에 몸담아 왔다. 김종영 대표이사는 동물약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종원대표이사

인터베트-쉐링코리아

대표에 서승원 상무 승진

인터베트-쉐링프라우코리아 서승원 상무가 사장으로 승진되면서 4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다국적 동물약품 기업에 한국인이 대표를 맡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서승원 사장은 “우수 동물약품을 국내 시장



▲ 서승원 대표

에 공급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성사료

공채 35기 신입사원 수료식 실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2월 23일 본사에서 공채 35기 신입사원의 정기교육 수료식을 실시하였다.

지난 해 11월 3일자로 입사한 이은찬(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졸업)씨를 포함한 8명은 4개월간의 정기교육과정을 마치고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간의 교육내용과 앞으로의 포부를 발표함으로써 정기교육 과정을 모두 마쳤다. 이들 신입사원들은 우성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교육을 비롯하여 축산회사의 전문적인 업무를 소화하기 위한 전문화 과정까지 우성사료의 연구농장에 입소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쌓았다. 우성사료는 축산현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객에게 전문화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 공채 35기 신입사원들은 3월 2일자로 보직을 받고 영업을 비롯한 각 부문의 일선에서 활동하게 된다.

중양백신연구소

VIV Asia 2009 참가



중양백신연구소(대표 윤인중)는 2009년 3월 11일 ~13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 위치한 BITEC에서 개최된 세계축산박람회 “VIV Asia 2009”에 메리알, 베링거 잉겔하임, SP-인터베트 등과 함께 대규모 독립부스를 오픈하였다. 중양백신연구소는 이미 축산업에 비중이 있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 백신을 수출하고 있으며 2005년에 개최된 “VIV Asia 2005”에도 규모 있게 독립부스를 진행하여 국내에서의 확고한 시장지위의 구축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의지를 선포한 바 있었다. 금년의 행사는 2008년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고 3년 연속 국내 동물용 예방백신부문의 매출 1위를 이룩한 중양백신연구소로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CAVAC 패밀리를 위한 환영리셉션

동사는 VIV Asia 2009가 열리는 가운데 3월 11일 방콕의 정상급 호텔중 하나인 “Swissotel Nai Lert Park”에서 가진 환영 행사에서는 국내에서 초청된 핵심 퍼포머들과 중양백신연구소의 글로벌 패



밀리 90여명이 자유롭게 교제하며 함께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영사에서 중양백신연구소의 대표이사 윤인중 박사는 중양백신연구소의 발전에는 국내외 글로벌 패밀리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신뢰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에 어긋남 없는 노력과 투자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국강화플라스틱

창립3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강화플라스틱(대표 박장춘)은 지난 3월 1일 군포공장에서 임직원 및 가족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창립기념 고사와 함께 전직원 및 관계자들과의 오찬으로 고객을 위해 보다 노력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동사는 1979년 창립해 국내 최초로 FTP사료저장탱크와 다양한 축산기자재 제품생산을 시작으로 1995년 정읍 공장과 2007년 음성공장을 준공하면서 고객의 만족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엠케이생명과학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

(주)엠케이생명과학의(대표이사 신영근)은 보다 좋은 서비스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에 고객전략 사업부의 차장으로 양승만씨와 중앙연구소 연구원으로 윤태영씨를 채용했다.

이번에 채용된 양승만씨는 상지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주)천하제일사료와 (주)벳 코리아의 영업부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베테랑 인력이며, 윤태영씨는 삼육대학교 응용동물학과를 졸업한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이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인력을 보강하면서 관계자측은 “change의 g지만 바꾸면 chance”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력할 뜻을 밝혔다.

체리부로농가협의회

창립 6주년 기념대회

지난 2월 27일 청주 소재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체리부로농가협의회(회장 백승립, 김영준) 창립 6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회사-농가의 상생과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마



련된 이번 자리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뉴캐슬, 시등 예방에 최선 △최선의 사양관리로 친환경 축산 경영 △회사와 농가간의 신뢰관계 구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백승립 회장은 “협의회가 출범한지 6년이 되면서 금년부터 체리부로가 브랜드 사업에 뛰어 들 수 있도록 농가들은 우수한 상품 생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영준 회장은 “농가는 생산성에, 회사는 유통에 노력해 윈윈하자”고 전했다.

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은 “소비자의 위생적인 욕구가 늘어난 만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농가와 회사가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니커

용인으로 본사이전 새출발

마니커(대표이사 한형석)가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에서 용인시 신갈동으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마니커의 새로운 사옥은 지상4층, 지하1층의 신축 건물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마니커는 이번 사옥이전을 계기로 조직의



체질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마니커 F&G와 마니커 F&C의 분사 등 지난 2년간 꾸준히 구조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 2008년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두천공장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마니커는 올 여름 성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 도계능력을 현재의 10만수에서 20만수로 늘리고, 부분육 생산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시스템

발효교반차용 그리스 공급장치 특허획득



강남시스템(대표 김태환)은 발효교반차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회전부품에 그리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장치를 구성에 대한 공급장치 특허를 획득했다. 자동 그리스공급기와 수동 그리스공급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분배기를 통해 그리스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회전부품에 공급시킬 수 있도록 구성함에 따라 발효교반차의 회전부품에 원활히 그리스를 공급하여 발효교반차의 원활성능 및 내구성과 작동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회전부품의 유지 및 관리를 저감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메리스바이오

육계용 콕시듐백신 '리바콕스-티' 출시



메리스바이오(대표 동희조)는 육계용 콕시듐백신 "리바콕스-티"를 출시하여 육계농가 및 계육생산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의 필수적인 단계로 고려되는 콕시듐백신의 적용은 향후 계육생산에 있어서 사육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육계에 콕시듐 백신을 적용할 경우 콕시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으로 계육의 상품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 031-693-7674)

PNP

질병 및 사양관리와 품종세미나 개최



PNP(대표 유세종)는 지난 17일 “질병 및 사양관리와 품종”이란 제목으로 이천미란다호텔에서 양계 및 관련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만육종담당 수의사인

Philipp 박사가 ‘대장균의 통제와 관리’를, H&N 사양기술 고문인 Jong Kuo 박사가 ‘산란성적 극대화를 위한 중추의 체중관리’를, 메리알코리아 박형진 수의사가 ‘뉴모바이러스의 피해와 대책’을 각각 강의하였다.

Philipp 박사는 유럽에서 케이지 금지에 따라 평사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따라 대장균 감염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효과적인 자가백신 생산에 주력해 나가야 하며, 육종과정에서 저항성 있는 품종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Jong Kuo 박사는 기본 매뉴얼에 입각해 관리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름길이며, 브라운 닉 품종이 농가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 강조하였다. 박형진 수의사는 뉴모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질병퇴치를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언급하였다.

1+등급 계란과자 눈길

제과업계 최초로 1+등급 계란을 원료로 만든 계란과자가 출시될 예정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해 4월부터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과자 제품에 ‘1+등급 특란’이라고 표기했다고 밝혔다.

1+등급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해태제과 관계자는 ‘품질 좋고 영양 많은 제품 생산과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등급판정 받은 계란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과자원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란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3월부터는 1+등급 계란 사용을 부각시킨 새로운 제품포장을 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